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23일 월요일 (음 12월 26일) 제173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4차 산업혁명 연계 미래성장동력 육성

### ▶ 도 경제산업국 울 주요업무계획

탄소산업 육성 동력 확보  
테크비즈니스 건립 추진  
수요창출형 드론산업 육성  
'작은창업' 활성화 도

전북도가 올해 서민경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기반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전북도 경제산업국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정화 및 미래 성장동력 기반이 조화된 6개 추진전략, 23개 실행과제, 154개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전북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 회복 지연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는 방침을 일관하고 있는 등 국내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전북경제 역시 지난 2012년 수출 감소세 반전 이후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올해 미국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에 따른 신흥국의 전복 상품 수요 증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본격적인 생산활동 시작 등으로 전북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희망을 걸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지난해 이룬 가시적인 성과를 토대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글로벌 탄소밸리 도약기 반 마련 및 탄소소재 상용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민국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산업부에서 수립 예정인 '탄소소재 종합발전계획'에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방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탄소산업 육성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15개 연구소기업 설립과 첨단기술기업 2개 지정은 목표로 추진하고,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해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상용차 부품 주행시험장 조성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형 글로벌 상용차 전진기

지 조성'을 위한 여타기획(5,000억 규모)을 통해 2025년 상용차 20만대 생산저점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창출형 드론산업 육성, ICT 융합형 건설기계 부품 시험설비 구축, 수출 농기계부품 품질 고도화 생태계 구축 등을 국가사업화 추진해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 농생명 등 특화산업 중심의 창조기업을 확대 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전담기관으로 재정비를 통한 지원기관간 연계·협업 강화로 손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드림 스카어 조성을 통해 산재돼 있는 창업 인프라를 집적화 하는 등 '작은창업'을 활성화해 전북형 창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쟁력 있는 탄소, 중견, 강소기업과 도내 각종 연구소와 연계한 산업별 핵심사업추진단을 실시해 135개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북도는 수출형 강소기업 육성 및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따뜻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지난 20일 오후 군산시청을 찾아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위원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장 등과 면담을 갖고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 군산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군산 방문

## “군산조선소 폐쇄, 적합한 표현 아니다”

“일감 부족 인한 부분적 휴업... 신규 물량 있으면 재가동” 강조  
“현대중공업이 살아남아야...”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일관  
송 지사,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워”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군산시를 방문해 군산조선소 존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일 오후 군산시청을 찾아 문동신 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위원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과 면담을 갖고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 군산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전 세계 조선 산업 발주량이 15%로 급감함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군산 조선소도 잠정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울산조선소에는 10개의 도크가 있으며, 이 중 군항 건조를 위한 2개의 도크를 뺀 8개 중 3개의 도크가 중단된 상태이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조선소 폐쇄 또는 문을 닫는다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며 “일감 부족으로 인한 부분적인 휴업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올해 군산조선소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1조4600억을 투자한 시설 가동 여부는 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며 “신규 수주 물량이 있을 경우 재가동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이후 군산조선소 잔류 인력에 대한 질문에는 “현 조선 해양산업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했을 당시에 비해 절반은 떠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단, 울산과 군산의 고용

비율은 같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인력 보장에 대한 질문에는 “시설 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보존에 대한 확답은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군산시가 현대조선소를 믿고 투자한 하청업체 등 각종 인프라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복안이 없다”고 일축해 참석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최 회장은 “현대중공업이 살아남아야 군산조선소도 살아남는다”는 경제 논리를 내세워 군산조선소 존치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 참석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은 “인력 감축부분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군산시 입장에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울산과 군산이 받는 임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역시 “뭔가 희망적인 소식을 들을 줄 알고 왔는데 실망스럽다”면서 “경제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의 기업을 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문정곤 기자

### 트럼프 신임 미 대통령 취임

도널드 트럼프(사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회의장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에서 취임식을 하고 세계 최강국 대통령으로서 4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날 90만 명의 관람 인파가 모인 가운데 취임식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식으로 시작했다.

트럼프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한 데 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제로 취임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 의식은 한 정권에서 다음 정권으로 권력을 인수하는 것이 아닌 위싱턴으로부터 국민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선 기간부터 주장해 오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인 이날 워싱턴 DC 곳곳에서 트럼프 취임에 분노한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뉴시스

### “박근혜 퇴진·재벌 해체”

강추위 속 '제11차 전북도민 총괄기대회'  
방송인 김제동 '만민공동회'와 병행 개최

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정치인들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일을 시킨 이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들은 우리 국민을 '흙수저'로 생각하고 무시하는데 노력하는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훨씬 낫다”며 “그들 금수저는 문을 안 열 어주면 차에서 혼자 내리지도 못하고 평평조차 제대로 꺼먹지 못한다. 우리 흙수저들은 그런 것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해 큰 환호를 받기도 했다.

김제동 씨의 만민공동회가 끝나고 가수 김강훈의 마무리 공연이 무대 위에서 진행됐다./김민근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21일 전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강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많은 도민들이 거리로 나서 촛불과 횃불 구호로 밤하늘을 수놓았다.

전북시국회의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 관동로에서 열린 '제11차 전북도민 총괄기'에는 4,000여명의 도민이 참석했다.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분노한 도민들은 촛불을 머리 위로 들며 '재벌 해체'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려 흡사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도민들은 무대 위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재벌도 공법' 등이 적힌 피켓을 힘차게 흔들었다.

유독 추운 날씨에 두터운 코트와 점퍼로 중무장 한 도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율동과 체조를 하며 추위를 이겨냈다.

문화공연이 끝나고 만민공동회 개최를 위해 무대에 등장한 방송인 김제동은 도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한밤을 인용해 “국가의 주

정유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17 익산시 사자성어 '비룡승운'

# 飛龍乘雲

지역발전 호기 맞아 승승장구하길 바라는 영원 담아

'비룡승운'은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듯이 양양이 때를 만나 권세를 얻는다는 의미로 한바자(해)·산(새)·평(평)·행(행)에 등장하는 용이다. 2017년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익산시가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 시민들의 삶이 편안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고 있다.

익산시